

# 국어 영역

홀수형

[지문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치원생이 아무렇게나 한 낙서와 같은 그림을 화가가 전시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그림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그림을 두고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림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외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진처럼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화가들은 15세기 르네상스의 화가들이다. 그들은 그림을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보고 실물을 방불케 하는 정밀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과 같은 외부 재현의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하였고, 그런 기술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세기까지 서양 미술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였다.

한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다가 19세기말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실물을 빼닮은 이미지를 그려내도 사진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외부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후 내면 표현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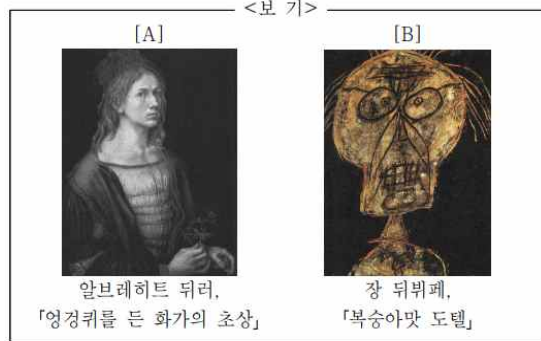
이런 변화는 르네상스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서양의 미술사에 존재해 왔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관점이 다른 관점과 부딪혔다가 밀려나고, 다시 부딪치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서양 미술사에는 수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그림은 재평가되기도 했다.

그림에 관하여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을 취하기 쉽다. 그리고 그와 다른 관점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쉽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관점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유치원생의 낙서와 같은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표시하시오.

1. 그림을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본 화가들은 외부 재현의 기술을 오랜 기간을 걸쳐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중시하였을 것이다. ( )
2. 서양 미술사에서 시대를 지배하는 관점의 변화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
3. '사진기의 발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화가들은 주로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을 것이다. ( )

4. 과학적 원근법과 명암같은 외부 재현의 기술은 실물을 방불케 하는 정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개발되었을 것이다. ( )
5. 사물의 외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은 18세기 서양 미술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 ( )
6. 외부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서의 서양 미술사 내의 변화과정에서 특정 그림의 재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 )
7.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A],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과학적 원근법과 명암 등을 고려하여 그린 그림이겠군.
- ② [A]는 그림을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관점에서 그린 것이겠군.
- ③ [B]는 화가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림인 것 같아.
- ④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A]보다 [B]를 높이 평가하겠군.
- ⑤ 사실적 재현을 중시한 화가라면 [B]보다 [A]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을 거야.

[지문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번개는 대기 중에서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을 말한다. 흔히 전기는 구리선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도선을 따라 흐른다. 그런데 기체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전이라고 한다. 어떻게 도선이 없는데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일까?

원자에는 양전하를 띤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들어 있다. 물체는 보통의 경우, 양전하의 전하량과 음전하의 전하량이 같은 전기적 중성 상태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한 물체의 전자들이 다른 물체로 이동하게 되어 두 물체 모두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전자가 이탈된 물체를 양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하고, 전자를 얻은 물체를 음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한다. 대전된 물체는 다시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다.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된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전하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두 물체 사이에

도선이 있으면 전하가 쉽게 이동한다. 그러나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면 도선이 없어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

뜨거운 여름, 태양에 의해 가열되어 가벼워진 지표의 공기는 상승 기류를 형성한다. 상승 기류로 인해 적란운이 만들어진다. 산봉우리 모양을 한 적란운 속에는 작은 물방울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상승 기류에 의해 서로 부딪치면 음전하와 양전하로 대전된다.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띤 입자는 상승하고,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띤 입자는 하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름의 상층부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하층부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인다. 상층부와 하층부에 대전된 입자가 많이 쌓이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방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이 바로 번개이다.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는 구름 속의 번개와는 다른 과정으로 발생한다. 대전된 물체를 중성 물체에 가까이 대면 대전된 물체와 가까운 쪽에 있는 중성 물체의 표면은 대전된 물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띠게 된다.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는 이 때문에 발생한다. 적란운의 밑바닥으로부터 음전하를 띤 공기 기둥이 동아줄처럼 지표 가까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기 기둥은 중성 상태의 지표가 양전하를 띠도록 유도한다. 공기 기둥의 음전하가 유도된 지표의 양전하에 점점 가까워져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방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의 번개는 지표로 내려오던 음전하들이 지표 상의 양전하와 만나 구름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번개가 떨어졌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흔히 번개를 벼락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벼락은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만을 말한다. 벼락은 전체 번개 중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번개에 비해 위험하다. 벼락은 100W 전구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① ②와 ④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의 빈도보다 ④와 ③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의 빈도가 더 높다.
- ② ②에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④에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이면 그 사이에서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③ 밑의 공기 기둥은 ③을 대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④에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여 있어야 ④와 ③ 사이에서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④에서 내려오던 음전하가 ③의 양전하를 만나 ④로 돌아가면서 번개가 발생한다.

-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표시하시오.
1. 구리선은 두 물체간 전하가 쉽게 이동하게 해줄 것이다. ( )
  2. 원자에는 음전하를 띤 핵과 양전하를 띤 전자가 들어있다. ( )
  3.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면 기체 내에서도 두 물체간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것이다. ( )
  4. A물체에서 B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었다면, A물체는 음전하로 대전되고, B물체는 양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5. 상승 기류로 인해 만들어진 적란운의 하층부에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상층부에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여있을 것이다. ( )
  6. 번개는 지표로 내려오던 음전하들이 지표 상의 양전하와 만나 지표 방향으로 내려가며 발생한다. ( )
  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1]

<1문단>

키워드: 그림, 관점, 거부반응

중심문장: 3번 문장 (같은 그림을 두고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림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이유: 그림과 관련한 두 개 이상의 관점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그림은 보는 사람의 그림에 대한 관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다음 문단 내용 예측: 그림에 대한 관점들이 설명 될 것임.

<2문단>

키워드: 외부 재현의 기술, 르네상스 화가

중심문장: 1번 문장(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외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외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문장 요약: 15세기 르네상스 화가들은 사물의 외부에 외부 재현 기술등을 이용해 그대로 그리는 것을 중시하였고, 19세기 서양미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3문단>

키워드: 사진, 주관적인 내면, 내면 표현

중심문장: 5번 문장(그 결과 그들은 외부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

→ 이유: 사진의 개발로 인해 사물의 외부 표현을 중시하던 관점 대신 주관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관점이 대두되는 내용이 3문단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사진의 개발로 인해 외부 표현을 중시하던 화가들에게 위기의식이 생기게 됐고, 내적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이 크게 대두 되었다.

특징: 2문단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3문단을 읽으며 2문단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2문단과 3문단을 의식적으로 비교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깊게 볼 문장: 1번 문장(한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이유: '한편'이라는 역접어를 통해 문단을 시작하므로 이전의 내용과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문단>

키워드: 변화, 서양의 미술사

중심문장: 2번 문장(한 시대를 지배하는 관점이 다른 관점과 부딪혀다가 밀려나고, 다시 부딪히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서양 미술사에는 수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 이유: 앞 문단에서 외부 표현 관점 -> 내적 표현 관점과 같은 사례를 들어 관점의 변화를 설명하였고, 이 문단에서는 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특정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주류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서 많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림은 재평가를 받기도 하였음.

<5문단>

키워드: 관점, 거부, 공감

중심문장: 5번 문장(외부의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유: 1문단의 사람의 관점마다 같은 그림에 대해 거부 반응 또는 공감을 나타낸다는 내용과 2문단, 3문단의 세부 개념 내용을 종합하여 이 지문의 총체적인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관점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충분히 달라지기에 하나의 관점만 취하고 고집하지 말아야한다.

전체 주제: 그림을 보는 관점

[지문2]

<1문단>

키워드: 번개, 방전, 도선

중심문장: 2번, 3번 문장(흔히 전기는 구리선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도선을 따라 흐른다. 그런데 기체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다.)

→ 이유: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자가 후에 설명 될 것이고, 두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전기는 일반적으로 도선을 따라 흐르지만 도선없이 대기에서 흐르는 경우인 방전을 통해 번개로 나아가기도 한다.

다음 문단 내용 예측: 전기가 흐르는 원리, 도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내용비교

<2문단>

키워드: 진하, 중성 상태

중심문장: 6, 7, 8번 문장(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된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전하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두 물체 사이에 도선이 있으면 전하가 쉽게 이동한다. 그러나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면 도선이 없어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

➔ 이유: 전기가 흐르는 원리와 도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물체의 전하가 물체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전기의 흐름이며 이는 도선이 있는 경우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도선이 없는 경우에도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면 일어날 수 있다.

특징: 많은 정보량을 다루고 있으며 생소할 수 있는 과학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에 간단한 메모 정리 또는 도식화를 통해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주의 깊게 볼 문장: 3번 문장(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한 물체의 전자들이 다른 물체로 이동하게 되어 두 물체 모두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전자가 이탈된 물체를 양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하고, 전자를 얻은 물체를 음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한다.)

➔ 이유: 생소한 과학 용어의 잦은 사용, 반대되는 내용의 비교, 정보량 등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기에 간단한 메모 정리가 특히 유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문단>

키워드: 상승 기류, 방전 현상

중심문장: 4, 5번 문장(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띤 입자는 상승하고,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띤 입자는 하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름의 상층부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하층부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인다. 상층부와 하층부에 대전된 입자가 많이 쌓이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방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이 바로 번개이다.)

➔ 이유: 2문단에서 언급된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여 도선 없이 대기 중에서 전기가 흐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적란운의 상층부에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 하층부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이게 되고, 각 층부에 대전된 입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순간적인 방전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발생하는 빛이 번개이다.

### <4문단>

키워드: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

중심문장: 2번, 5번 문장(대전된 물체를 중성 물체에 가까이 대면 대전된 물체와 가까운 쪽에 있는 중성 물체의 표면은 대전된 물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띠게 된다.), (공기 기둥의 음전하가 유도된 지표의 양전하에 점점 가까워져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방전 현상이 나타난다.)

➔ 이유: 4문단은 대기중에서 전기가 흐르는 방전 현상의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로 되는 원리를 2번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원리를 통해 방전 현상의 또 다른 경우인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를 5번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잘 연결해서 읽는 것이 4문단을 독해할 때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구름과 지표사이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구름속 공기 기둥의 음전하가 유도된 지표의 양전하에 점점 가까워질 경우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이다.

### <5문단>

키워드: 벼락

중심문장: 1번 문장(우리는 흔히 번개를 벼락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벼락은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만을 말한다.)

➔ 이유: 5문단은 번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벼락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지문을 마무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대기와 지표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 벼락이며 이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

전체 주제: 번개와 관련해 대기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